

#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성과와 과제



이 권 우\*

도서관문화 6월호 특집란에 게재된 5편의 글은 2004 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 날’ 세미나(6월 4일, COEX 321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도서관협회 공동주최)에서 발표된 내용을 발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세미나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orla.or.kr)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미국에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다. 만약, 이런 현상이 공공영역이 아니라 문화산업영역에서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책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국내에 들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난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역대 최고의 저작권료를 물며 번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신문을 도배할 것이다. 돈이 된다면,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산업분야는 기동성있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나는 벌써부터 뼈딱한 시선으로, 남의 나라에서 성공한 독서운동이 국내에 유입되는 데 그토록 오랜 시일이 걸린 데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속내를 보인 셈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 할 만한 독서운동을 창안하지 못한 것만도 부끄러운 마당에 남들이 잘 하고 공개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마저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에 내가 참여하게 된 바탕에는 이런 안타까움과 울분이 숨어있다.

말만 무성했지 정작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을 마침내 해냈다. 기대와 염려속에 일은 진행되었고, 시범사업을 펼친 서산시립도서관의 헌신 덕에 정말 잘 치루어냈다. 적은 인원과 짧은 행사시간이 문제였지, 사업의 성격과 특징을 정확히 이해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감히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이 사업에 동참하며 느낀 것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야말로 도서관이 독서운동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좋게 말하면, 우리의 도서관은 그동안 식물성이었다.(나쁘게 말하면, 식물인간이었다. 라고 말하면 도서관인들이 화를 낼 터이다. 그래서 좋게 말한 것이다.) 뿌

\* 도서평론가, ikw1015@hanmail.net

리를 내리고 버티고 있으면, 필요한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와 이용하는 공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펼치는 운동인데다,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알리고 조직을 꾸리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도서관이 동물성의 성격을 보인 것이다. 책을 읽지 않는 시민들에게 찾아가 책을 읽을만한 동기를 마련해주고, 아직 독서력이 짧은 시민들에게 책읽는 요령을 일깨워주고, 전문가 수준의 시민들에게는 고차원의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도서관은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토론을 가장 중요시하는 독서운동이다. 그러기에 대상 도서선정의 기준은 과거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 먼저 지역사회가 맞닥뜨린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어야 했으며, 그 책이 도발적인 문제의식을 일으킬만 해야 했다. 그동안 각종 독서단체가 쏟아내놓은 도서목록은 우량, 건전 등의 접두사를 달고 있었다. 이 자체가 그릇되었거나 무조건 비판받을 일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각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목록만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목록은 그 자체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의 세계에 입문하려는 시민들에게는 역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고리타분하다는 고정관념을 낳은 것이다. 그러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대상도서는 우량하고 건전한 도서임에도 그것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야 한다는 또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해, 설사 우량하고 건전하지 않더라도 토론을 통해 작가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비판할 수 있다면, 대상도서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천목록의 다양화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놓은 것이다. 대상도서가 시민사회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더 많은 시민이 책을 읽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본디 책은 공중(公衆) 사이에서 읽혔고, 그 가치가 판가름났다. 이 오랜 전통이 무너진 것은 근대에 들어서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성과로 반드시 꼽아야 하는 것이 바로 책읽기의 오랜 가치를 오늘에 되살려 놓았다는 점이다. 함께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신명을 경험하며 해석의 다양성을 접하게 된다. 서산시의 경우, 성인들의 토론회 조직에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청소년의 토론회 조직에는 교사들의 동참으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책을 멀리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책읽기의 가치와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확인시켰다는 것만으로도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 도시의 시민들을 이 행사에 끌어들이는데는 도서관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다양한 독서운동단체나 시민단체와 그물망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운동과정을 지켜보며 도서관은 텅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그릇을 채우는 것은 지역 독서운동 일꾼들이다. 앞으로 도서관이 지역독서운동단체와 얼마나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느냐 여부에 따라 이 운동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 분명하다. 서산시의 경우, 동화읽는어른모임과 일선학교 도서관담당 교사들의 활약이 이 운동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뭐니뭐니해도 서산시립도서관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이 운동의 본디 취지대로, 시민사회를 책으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했다는 데 있다. 서산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도시로 성장하는 과도기 상태에 있다. 농업을 기반으로 어업도 활발하며 석유공업단지도 들어서 있다. 지역사회에 이질적 일 수밖에 없는 공군부대와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 대학도 있다. 통합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이다. 이런 작은 용광로를 책으로 하나되게 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도전해볼만한 과제인 것도 분명하다. 앞에서 말한 한계 때문에 시민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큰 성과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성과를 잔뜩 늘어놓기에는 어딘가 석연찮다. 결국은 남들이 한 일, 고작 따라한 것에 불과하지 않던가. 성과에 대한 만족보다 반성이 앞서야 하는 이유다. 국가의 지원이나 시민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감동하게 할 만한 운동을 우리의 도서관이 펼친 적이 있는지 곱씹어보아야 한다. 이제 도서관은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변화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식과 교양의 성체이며 평생교육의 보루인 도서관이 시대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꾀꾀하게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비책이다.

서산시가 시범사업을 펼치는 기간에 순천시가 이 운동을 시작했고, 부산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도서관협회가 시범사업을 한 것은, 이 운동이 자칫 잘못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의 책을 선정해 이를 시민들이 읽게 하는, 말하자면 또하나의 '느낌표'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범사업 내내 토론회의 중요성을 표나게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말, 어디에서 이 운동을 하든, 가슴에 새길 것이 있다.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작은 토론회를 조직해내지 못하면, 이 운동은 그야말로 고무줄 없는 팬티요 양꼬 없는 찢빵이라는 점이다. 이왕 말 장난한 김에 더 하면, 바퀴벌레에 바퀴 없어도 바퀴벌레고 붕어빵에 붕어 없어도 붕어빵이지만, 토론회가 없으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독서운동은 자발성보다는 강제성을 띤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이 운동에 강제성이 끼어들 여지는 좀처럼 없다. 운동에 더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려면 운동주체들의 창의적인 기획력이 요구된다. 더욱이 토론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사회에서 독서토론을 유도한다는 것은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토론회를 노른자위라 하면, 다양한 형식의 축제는 흰자위가 되어야 한다. 흥미를 돋우고 관심을 이끌만한 다양한 축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데 이르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제, 물꼬는 트였다. 서산시의 사례를 제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된다. 그러라고 시범사업을 펼친 것이다. 남은 것은 오로지 결단이다. 지역도서관이 식물성의 수동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동물성의 능동태로 변화할 것인가. 도서관인들의 분발을 촉구할 뿐이다. 